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225

패전과 해방, 미귀환자의 반(反)이동의 정치성*

오 태 영**

요 약

19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 조선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구식민자로서 일본인들과 피식민자로서 조선인들에게 부여한 이동의 조건·문법·형식들은 대체로 국민(민족)국가의 실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패전 국가로서 전후 레짐의 구축,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동은 국민(민족)국가의 경계 속으로 포섭되는 '당위적 귀환'으로 균질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패전/해방 이후 일본과 조선으로 귀환하지 않았던/못했던 재조일본인과 재만조선인의 행위와 욕망을 통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생명정치의 메커니즘 속에서 포섭되면서 동시에 배제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확정된 국민(민족)국가의 경계를 기준으로 배제/포섭하는 것이 아닌, 포섭하는 것 못지않게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경계를 획정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국의 잔여이자 국민국가의 잉여로서 재조일본인과 재만조선인 미귀환자의 반이동의 정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제어: 패전, 해방, 귀환, 이동, 국민(민족)국가, 전후 레짐

* 이 글은 2018년 10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4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 학술대회 〈소설이란 무엇인가〉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서승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목차

1. 패전과 해방, 체제 변동과 귀환
2. 재조일본인 미귀환자의 벌거벗은 몸
3. 재만조선인 미귀환자의 훼손된 민족성
4. 미귀환자의 반이동의 정치성

1. 패전과 해방, 체제 변동과 귀환

19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 조선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제국-식민지 체제의 해체와 탈식민-냉전 체제의 형성 및 동아시아 지역 내 국민(민족)국가 발흥의 임계점이 되었다. 이때 과거 제국-식민지 체제에 의해 구축되고 운용된 이동의 조건·문법·형식들을 통해 이동이라는 공간적 실천 행위를 수행했던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체제 변동 과정에 조응해 새롭게 움직여야만 했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에 이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개된 전시총동원 체제기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인구와 물자가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배치되었다가, 패전/해방 이후 국민(민족)국가 경계가 새롭게 획정되어감에 따라 그 경계 속으로 회수되어 재배치되었다. 그것은 패전/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극복하는 한편, 국민(민족)국가를 구심점으로 자신을 재정위시키는 움직임으로 점철되었고, 상실된 것의 회복이라는 욕망의 발현 속에서 '귀환'의 과정을 달성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점에서 패전/해방 이후 '귀환'은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동의 과정이었다. 과거 '대동아(大東亞)'라는 제국의 확장된 권역으로 이동했던 일본인들은 패전의 기억을 억류의 기록으로 덧씌운 채 '인양'되었고,[1]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역으로 이동했던 조선인들 또한 한반도라는 지리적·문화적·심리적 경계 속으로 서둘러 돌아와야만 했다. 당시 일본과 한국에서 이동의 과정을 서사화한 각종 서사, 소위 '귀환서사'가 문화사적으로 폭증했던 것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일본인의 귀환 과정을 서사화한 대표적인 귀환서사로는 익히 알려진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를 들 수 있다. 패전 직후 만주국 신찡(新京)으로부터 일본으로 귀환하는 과정의 간난신고는 당시 해방 조선의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2] 한편, 해방기 한국소설에서도 조선인의 귀환 과정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계용묵, 김동리, 김만선, 안회남, 엄흥섭, 염상섭, 정비석, 채만식 등의 소설 속에서 귀환·귀향하는 조선인의 행위와 욕망을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3]

확실히 해방기 한국소설을 대표하는 서사 형식 중의 하나는 귀환서사이다. 그리고 이 귀환서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 일반적으로 귀환서사는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서사화하여 제국적 주체가 민족적 주체로 전신(轉身)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춰 이해되어왔다.[4] 그리고 비록 균열의 지점이 있었지만, 귀환서사

1) 1950년 전후 일본인의 패전의 체험과 억류의 기록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경험과 기억은 단절된 채 패전의 기억이 전면에 내세워졌고, 억류의 고통에 관한 기록 속에서 제국의 일원으로서 가해자 의식을 생산해내는 회로와 계기를 봉인하였다. 전쟁 폭력에 대응하는 개인의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 그러한 폭력에 이르는 과정을 삭제했던 것이다. 成田龍一, 『「戰爭體驗の戰後史—語られた體驗/證言/記憶』, 岩波書店, 2010, 106면.

2)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를 비롯한 귀환서사가 '제국적 정상성'의 파탄과 '국민국가적 재정상화' 과정에서 일본과 조선(남한)을 가로지르면서 어떠한 표상 체계를 생산하고 기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김예림, 「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精神誌)」, 권혁태·차승기 엮음, 『'전후'의 탄생』, 그린비, 2013, 216-252면 참고.

3)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40면.

가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동하였음을 밝히기도 하였다.[5] 같은 맥락에서 귀환서사에 나타난 '조선인-되기'의 과정에 남성/여성의 젠더적 위계화가 작동되어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재편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을 논의하기도 하였다.[6] 한편, 이와 달리 해방기 다층적인 인구의 이동을 '귀환'으로 명명하는 것에 거리를 두면서 이동하는 주체들의 행위와 욕망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거나, 불안을 야기하는 양상에 주목해 국가의 형성이 오히려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체제의 안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7] 또한, 제국주의적 질서 붕괴 이후 조선인 귀환자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국가의 작동과 인민의 길항관계가 갖는 의미를 고구하여 에스닉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벗어나고자 했던 귀환자들이 후식민의 에스닉 혼종지대에서 난민으로 전락한 상황을 예리하게 보여주기도 하였고,[8] 귀환을 통한 진정한 해방이 민족=국가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증여의 윤리'를 통해 교환 경제를 넘어선 탈자본적 민족=국가를 상상하는 방향으로 나가가고 있다고 논의하기도 하였다.[9]

이상의 귀환서사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패전 일본인과 해방 조선인이 귀환이라는 이동의 과정을

4)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40호, 한국비교문학회, 2006, 131-157면.
5)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間SAI』 제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161-193면.
6) 오태영, 「민족적 제의로서 귀환의 젠더 정치」, 『팰럼시스트 위의 흔적들-식민지 조선문학과 해방기 민족문학의 지층들』, 소명출판, 2018, 292-293면.
7)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27-363면.
8)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제29집, 상허학회, 2010, 333-376면.
9) 류보선,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제4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175-210면.

수행하면서 각각 국민(민족)국가라는 경계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구축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귀환하지 않은/못한 일본인과 만주 지역으로부터 귀환하지 않은/못한 조선인은 엄연히 존재했다. 그간 패전/해방 이후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과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의 이동에 관한 논의가 주로 '귀환(을 달성)한 자'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들 미귀환자는 패전/해방 이후 국민(민족)국가 경계 밖의 존재로서 '제국의 잔여이자 국민국가의 잉여'로서 인간의 존재 조건 및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탈식민-냉전 체제로 전환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舊)식민자였던 재조일본인과 피식민자였던 재만조선인이 체제 변동에 따라 변화된 세계 속에서 자기를 재정위하기 위해 이동하였고, 국민(민족)국가 건설 및 재건의 당위가 그러한 이동의 문법을 형성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여 끊임없이 개인들을 움직이게 하였기 때문에 귀환서사에 관한 연구가 주로 귀환하는/한 자에 주목하여왔던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反)이동은 그 자체로 체제의 실정성(positivity)을 강화하는 이동의 조건·문법·형식들의 의미를 되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체제의 실정성을 구축하고 고착화하는 과정에서 기실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배제되었다는 점을 폭로한다. 따라서 패전 이후 '전후(戰後)' 레짐을 구축해갔던 일본이나,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의 기치를 내걸었던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은/못한 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1945년의 패전과 해방은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은 아니었다.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내 식민지 개척·경영, 1930년대 이후 본격화된 침략 전쟁의 전개 과정을 떠올린다면, 또한 제국 일본을 정점에 놓는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해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대응하고자 했던—비록 그것이 전쟁 수행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지만—제국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 과정을 고려한다면, 패전에 의한 제국-식민지 체제의 해체는 한일 간의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변동시킨, 나아가 냉전 체제를 형성해가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일본인과 조선인, 재조일본인과 재만조선인의 (미)귀환을 통해 전후/해방기 미귀환자의 반이동의 정치성을 말하는 것은 물론 제한적이다. 쉽게 떠올릴 수 있다시피, 재만일본인, 재일조선인 뿐만 아니라, '내지(內地)'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이동했던 일본인과 조선인, 나아가 중국인과 타이완인 등 동아시아인들의 존재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재조일본인과 재만조선인의 반이동에 주목하는 것은 패전 직후 일본인들의 귀환(인양)서사가 주로 식민지 조선을, 해방 직후 조선인들의 귀환서사가 주로 만주지역을, 각각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귀환을 달성해 국민(민족)국가의 경계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개인의 행위와 욕망이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성을 추인 받는다고 했을 때, 물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귀환의 과정을 수행했느냐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동의 과정이 사건으로서 의미화되어 서사성을 갖기 위해서는 서사의 발단이 되는 이동의 출발지가 어디였는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귀환의 과정이 완료되는, 즉 이동이 종료되는 종착지가 모국, 고향 등이라고 했을 때, 귀환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이동이 시작되는 출발지는 돌아가야 할 모국, 고향과 대척적인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규정된다. 해서 이동의 서사, 귀환서사에서 그 출발지는 돌아가야 할 곳을 상기시키는 한편, 귀환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예비한다.

지리적 인접성과 자연 조건, 그리고 내선일체의 통치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타 동아시아 지역 및 식민지와는 다른 정치경제적 위상을 구축했던 조선으로부터 귀환하는 재조일본인의 서사와, 같은 맥락에서 지리적 인접성과 오족협화의 건국이념 속에서도 이등국민의 지

위를 누릴 수 있었던 만주 지역으로부터 귀환하는 재만조선인의 서사는 재만일본인, 재일조선인의 귀환 과정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서사로서의 의미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실제 제국-식민지 체제기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과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보다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각 전후문학 및 해방기 문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패전/해방 이후 일본과 한국의 문학이 무엇을 사건화해서 서사로 구축하고 의미 부여하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후 체제하 국민국가의 재건과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문학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으로부터의 귀환하는 일본인과 만주로부터 귀환하는 조선인의 이동을 사건으로서 의미화하는 당대 문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조일본인과 재만조선인의 반이동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해방기 한국소설을 대상으로 제국-식민지 체제 붕괴 이후 돌아가지 않은/못한 자들의 반이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국소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본소설과 한국소설, 나아가 동아시아문학을 비교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국의 잔여이자 국민국가의 잉여로서 미귀환자 일본인과 조선인의 반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전후문학은 돌아오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패전 이후 '외지(外地)'의 전쟁터나 식민지 혹은 점령지를 떠나 돌아오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것은 징집당한 군대나 동원된 군수공장, 소개되어 있던 시골의 공동숙사에서 원래 살았던 장소로 돌아가는 이야기들로 즐비하다. 물론 패전 이후 실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못한 일본인들이

약 3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일본의 전후문학에는 돌아오지 못한 자들과 돌아가야 할 '일본'을 상실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의 서사를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후가 돌아오는 데서 출발한 만큼, 일본으로 돌아온 자들이 황폐한 땅에서 '집'과 '사회'를 재건해나가는 서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10]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 역시 돌아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하는 존재들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귀환자들의 이야기가 전후문학, 패전 이후 일본 소설의 주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 이후 한국문학도 마찬가지였다. 해방을 맞아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경계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조선'이 떠나기 전의 조선과 다른 곳이라는 인식 속에서 동요와 불안을 겪으면서 전재민(戰災民)으로 전락하여 정처 없이 부유하는 인물군상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제국이 붕괴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국가로서 일본은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은 국민-되기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반면, 해방 조선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탈식민화의 과정을 수행해야만 했다. 해서 조선인의 귀환은 일본인의 그것에 비해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 그로 인해 귀환을 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국적 질서 아래 삶을 영위했던 식민지 조선인이 미귀환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착잡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미귀환자의 반이동의 정치학은 탈식민의 해방기 한국소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거기에는 구식민자 일본인 미귀환자의 흔적들이 비록 흐릿하지만 아로새겨져 있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해방기 한국소설을 대

10) 가와무라 미나토 지음, 유숙자 옮김, 『전후문학을 묻는다』, 도서출판 소화, 2005, 13-23면.

상으로 재조일본인과 재만조선인 미귀환자의 표상 및 그들이 보여주는 반이동의 행위와 욕망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재조일본인 미귀환자의 벌거벗은 몸

제국의 식민지 개척의 역사가 그러하듯, 식민지를 점령·운용하는 과정에서 식민 모국의 인구와 물자는 급속히 식민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식민 통치 권력의 자장 속에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제국 일본이 타이완에 이어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만주·중국 등 대륙 아시아와 필리핀·말레시아 등 해양 아시아의 각 지역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을 가속화함에 따라 일본인, 일본의 자본, 일본의 물자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이동하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고 동아시아 각 국가와 지역들을 식민지화해 가면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재편했던 일본은 193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시총동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그에 따라 전쟁 수행을 위해 인구와 물자가 동원되어 재편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및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전/패전에 따라 제국적 질서하 삶을 영위했던 일본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각종 단체와 기관의 원조 아래 그것을 수행했다.

당시 한반도의 일본인 귀환 문제와 귀환자 처리는 남북한에서 차이를 가졌다. 남한 지역의 일본인 귀환은 1단계(1945년 9-11월) 군인·군속의 무장해제와 우선 송환, 2단계(1945년 11월-1946년 3월) 민간인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을 비롯한 38선 이북에서 내려온 일본인들의 송환, 3단계(1946년 3-12월) 북한에서 내려온 남하 일본인 중심의 송환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의 송환은 군사적 관점에

서 일본인 귀환 문제를 접근한 미군 점령지역의 정책상 특징을 반영하였고, 2단계의 송환은 민간인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잔류와 귀환 사이에서 동요하던 일본인들의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시사하며, 3단계의 송환은 여타 미소 점령지구에서 확인된 상이한 인구 이동 양상이 한반도에서 축약된 형태로 재연된 결과로서 소련 측의 행정적 부담이 미군 측에 전가되었음을 보여준다.[11] 한편, 북한 지역의 일본인 귀환은 소련군의 진주와 일본인의 특권 박탈, 그리고 조선인의 치안유지권 회복 등 소군정 점령 당국과 조선인 사회주의자 그룹의 정권 창출 과정에서 정치적 효용의 대상으로 위치 지어졌던 일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 재산을 박탈당하여 공동생활을 하거나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상황 속에서 1946년 3월부터 다양한 형태의 남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북조선 조선인 사회에서는 일본인들을 '동정론'과 '무용론'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는데, 잔류 일본인이 힘없는 자들이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전자에 해당했고, 식량을 비롯한 주택·위생 문제를 감안해 제한된 물자 때문에 일본인에게 배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후자에 해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6년 봄부터 소군정의 '묵인' 하 미군정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규모의 남하 이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12] 이처럼 일본인 귀환은 미소 점령당국, 조선인, 일본인 3자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던 재조일본인의 경우, 잘 알려진 것처럼 세화회 등의 단체가 1948년까지 활동하면서 그들의 귀환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13] 하지만 모든 재조일본

11)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56면.

12) 이연식, 위의 글, 256-270면.

13) 패전 이후 1948년 7월까지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의 생활 안정 및 귀환을 지원했던 일본인 세화회의 결성 및 활동 등에 대해서는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 논형, 2013 참고.

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재만조선인의 귀환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는 허준의 「잔등」에는 패전 직후 소군정 체제하 북한사회에 잔류/억류된 재조일본인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 소설의 중심 서사는 해방을 맞아 만주국 신찡에서 서울로 가고자 하는 청년 지식인이 이동의 과정에서 만난 노파로 인해 '제3자의 정신'을 갖게 되는, 그리하여 해방 이후 피식민자로서 구식민자에 대한 처벌과 응징이 아닌 연민과 동정의 윤리성을 획득하게 된 양상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다.[14] 해방 직전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노동운동에 가담하여 옥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장어를 잡는 소년처럼 일본인을 원한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아 속에 허덕이는 한 인간에 대해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노파의 휴머니즘적 태도는 민족 수난사의 맥락 속에서 반제국주의·반파시즘의 기치를 내걸면서 일본과 일본인을 적대시했던 당시의 정황과는 확실히 차이를 갖는 것이었다. 해서 그러한 노파의 행위를 서술자인 천은 "경이보다도 그것은 인간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視野)를 거쳐서만 거둬 들일수 있는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 같은 곳에 나를 연하여 주었다"[15]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자의 눈에 비친 잔류 일본인들은 누구였던가? 패전 직후 소군정 체제하 집단 수용소 격인 '특별구역'에 수용되어 일본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이름 없는 자들, 비천한 육체를 가진 자들,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호모 사케르이다. 귀환의 도상에서 회령을 향하던 중 만난 소년이 특별구역에 갇혀 있던 일본인 부부가 탈출하려고 하자 그들을 인민위원회에 고발해 가지고 있

14) 이와 관련해서는 신형기, 「허준과 윤리의 문제: 「잔등」을 중심으로」, 『분열의 기록—주변부 모더니즘 소설을 다시 읽다』, 문학과지성사, 2010, 149-178면 참고.

15) 許俊, 「殘燈」, 『殘燈』, 乙酉文化史, 1946, 90면.

던 재물을 몰수하고 고무산이나 아오지 탄광으로 보냈다고 말했을 때, 그때 패전 국민으로서 일본인은 돌아갈 수 없는 자이다. 뿐만 아니라 방과 헤어진 뒤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청진 역 부근에서 기다리면서 보았던 일본인 여성은 어떠한가? 남편을 잃고 기아에 허덕이는 세 아이를 데리고 노상의 광주리 속에 놓인 배 하나를 구걸하는 여성, "허옇게 퉁 퉁 부어오른 나체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헝겁쪼각으로 머리를 찔끈 동이고, 업고,달리우고, 잡힌채, 길 바추에 비켜 서 있"[16]던 여성, 배 하나 살 돈이 없는 것이 뻔한 일임에도 자신에게 한 개 오 원이라며 배를 들어 보이는 조선인 행상에게 참다못해 일본어로 아이들이 아우성이라며 자포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여성, 비참한 그녀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자이다. 그리고 그런 그녀들이 역사에 덩그러니 내버려진 것과 같은 아오지행 열차에 삶을 체념한 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국밥집 노파에게 그들은 "애비랄것 없이 남편이랄것 없이 잃어버릴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헌 너줄떼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업고 안ㅅ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17]로 비천한 인간으로서 연민의 대상이지만, 일반적으로 패전 직후 잔류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게 소년이 잡은 뱀장어처럼 죽어가면서 발악하는 '미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이다. "수부(首部)가 전면적으로 으깨어져 나간 나머지는 그저 고기요, 뼈다귀요, 피일 밖에 없는 생명이 어디가 붙었을데가 없는 이 미물이 가진 본능이라 할는지 육감칠감이라 할는지 혹은 무슨 본연적인 지향(指向)이라 할는지 어쨌든 이 생명에 대한 강렬하고 정확한 구심력(求心力)—나는 무슨 큰 철리의 단초(端初)나 붙잡은 모양으로 흐뭇한 일종의 만족감을 가지고 동물의 단말마적 운동을 바라보고 있

16) 위의 책, 82면.
17) 위의 책, 81면.

었다."[18] 머리가 으깨어져 죽어가면서까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발휘하는 강인한 생명력, '살아 있음' 그 자체를 현시하는 존재가 패전 직후 억류된 재조일본인의 형상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에서처럼,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갖 생명에의 위협을 감내하며 일본으로 돌아간 여성의 고난의 서사[19]로는 포착되지 않는 제국의 잔여이자 국민국가의 잉여로서 남겨진 재조일본인들이라는 존재는 상징적이다. 그들은 국민국가의 경계 속에 안착하지 못하고 내버려진 존재, 귀환서사가 발휘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는커녕 바로 그 국민국가가 기실 방기하고 배제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한다. 귀환자의 드라마가 패전의 트라우마적 기억을 상기시키는 한편, 그것을 극복해가는 인간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통해 전후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해갔다면, 잊혀진 존재로서 미귀환자들은 그러한 체제의 실정성이 무수히 많은 인간들을 이동할 수 없게 한데서 강화되어갔음을 짐작하게 한다. 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자, 귀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자들이 아닌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상실한 자들은 패전 이후 전후 레짐의 형성 과정 속 포섭하면서 동시에 배제하는 생명정치의 메커니즘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재조일본인 미귀환자들 중에는 자발적 미귀환자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방 조선에 잔류했던 일본인은 누구였던가? 아니 누구여야만 했던 것인가? 이에 대한 단서를 염상섭의 『효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직후 급속도로 재편된 체제의 전환과 사회 구조의 변동 과정 속에서 각각의 정치적 지향과 노선을 내걸고 민족국가 건설의 기치

18) 위의 책, 29면.
19) 후지와라 데이, 위귀정 역,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 청미래, 2003.

아래 대립한 좌우익의 정치 세력 및 단체의 난립, 그리고 미군정 체제하 제국 일본문화의 잔재와 새롭게 유입된 미국문화의 혼재 상태 등『효풍』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남북한 분단 체제 성립 전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한사회의 풍속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남한사회에 새롭게 출현한 인간—통역자, 무역상, '호모 아메리카나' 등—의 행위와 욕망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흥미로운 작품이다.[20] 이 혼돈의 서사 속에 구식민자 잔류 일본인 여성이 등장한다.

한일병합 이전 통감부 시대 조선으로 이주한 부모에게 태어난 가네코(金子)는 조선인 유모의 손에 자라 조선어에 능통한 일본인 여성이다. 그녀는 정혼자 격이었던 일본인 남성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간 뒤 여학교를 졸업하고 미쓰코시백화점에 취직한다. 이후 학생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조선인 남성 임평길과 결혼한다. 그녀의 부모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딸을 고집을 꺾지 못했고, 만약 일본인 사위가 전장에 나가 죽기라도 한다면 외동딸을 생과부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된다. 그리하여 가네코의 남편 임평길은 가네마쓰의 양자 사위가 되어 길야평길(吉野平吉)로 입적하는데, 결혼 전에는 아직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 징용이 실시되지 않았던 때라 전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고, 결혼 후 식민지 조선에 징병령이 실시되었을 때에도 일본인 장인 덕에 일본인으로서 군대에 징집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아가 해방 이후 그는 다시 임평길이 되어 장인이자 양아버지의 일본인 아들로서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적산(敵産)을 '불하' 받는 형식으로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 한편,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진 가네코는 재산을 처분해 일본으로 돌아간 부모와 달리 조선에 남아 해방 직후 가네마쓰라는 이름의 요릿집을 취송정(翠

20) 오태영,「남성서사의 젠더 정치와 맨스플레인」, 앞의 책, 355-356면.

松亭)으로 바꿔 직접 운영한다.

『효풍』에 나타난 가네코의 이력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서술했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패전 이후 한반도(특히, 남한사회)에 잔류했던 일본인이 누구였던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 귀환하지 않은/못한 일본인은 누구였던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해 해방 이후 잔류한 일본인 여성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과거 제국-식민지 체제기 식민지 조선인의 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상기시키는 존재라던가, 어떤 식으로든 구식민자로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녀는 해방 조선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처벌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가 조선인과 미국인들이 드나들던 요릿집 마담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정치적 혼돈 상황 속에서 그녀가 소위 배제되거나 처벌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국식 자본주의 질서가 침투·확산되어가던 해방기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에 분주했던 인간(특히, 남성 젠더)에게 구식민자였던 일본인 여성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 간데없는 조선기생이다. 호박단 양회색저고리에 윷동남치마 파마한 머리 앞도 수수하게 얌전히 제자리가 잡혔거니와 장선생이 외씨같이 뭉글려 신었다는 버선 신은 발맵시는 스란치마에 가려서 미처 못 보았지마는 이것이 기모노에 게다로 자라난 여자던가 생각하면 혜란이는 하도 신기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다. …(중략)…
>
> 일본사람으로 조선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 미모와 함께 이런 장사에는 인기를 끄는 '간판'도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어깻바람이 나서 너름새 좋게 얼레발을 치거나 하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인다. 퍽 조심을 하는 눈치요 어딘지 쓸쓸한 그림자가 어

리어 보인다.[21]

스스로 일본인으로서 자기를 탈각하고 조선인으로서 살아가는 여성, 물론 그녀는 "쪽발이 왜녀가 진솔 버선을 뭉글려 신었"[22]다고 말하는 장만춘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비천한 대상으로 위치한다. 그리고 남성적 응시의 대상으로 주로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강한 육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 여자는 약간 철색을 띤 감중한 귀염성스러운 얼굴 위에서 게슴츠레 뜨는 눈의 표정이 자유자재로 노니 얼굴 전체가 모진 데가 없이 어느 남자에게나 자기의 감정을 실려오는 듯시피 어딘지 모르게 유혹을 느끼게 하여 일본사람이라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동정을 가지게 한다."[23]고 자신과 닮은 듯 다른 가네코에 대한 김혜란의 인상 평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듯, 해방 조선에 잔류했던 일본인 여성은 특히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존재로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인이지만 조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일본인이지만 일본인일 수 없고, 조선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결코 조선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가하면, 조선인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사랑과 결혼은 파탄 나고, 취송정의 '마담'으로, '간데없는 조선기생'으로 비천한 육체성을 간직한 존재이다. 한편,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인 남편에게 삶을 의탁해 패전 이후에도 조선에 남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다시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기민하게 전신해갔던 남편 임평길에게 그녀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존재로서 배제해야

21)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26-27면.
22) 위의 책, 26면.
23) 위의 책, 28면.

만 하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녀의 패전 이후 한반도 잔류가, 즉 일본으로의 미귀환이 내선결혼을 한 일본인 여성의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였다면, 그러한 선택을 통해 그녀는 안주하거나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 분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가부장제도와 미국식 자본주의로부터 자양분을 받는 한편,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강화·발현해갔던 남한사회의 남성들의 성적 응시의 대상으로서 조선 기생을 흉내 내는 일본인 여성이라는 말 그대로 혼종적인 신체를 제공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해방기 한국소설에서 미귀환자 잔류 재조일본인들은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과거 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환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약하고 비천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오직 생존에의 강한 욕망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조선인이 되고자 했다. 또한, 미군정 체제하 경제 구조의 변동 과정 속에서 새롭게 남한사회에 등장한 남성들의 성적 응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물론 해방 이후 잔류 일본인들이 모두 여성 젠더일 리 만무하지만, 허준의 「잔등」이나 염상섭의 『효풍』에서 잔류 일본인이 주로 여성 젠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상실된 남성성을 회복하고 발현하는 데 있어서 구식민자 제국 일본의 여성은 그러한 욕망을 거세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욕망을 강화하는 존재로서 위치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후 일본사회가 그녀들을 배제하는 것을 통해 국민국가로서 거듭났던 것 못지않게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그녀들은 소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녀들은 제국의 잔여이자 국민국가의 잉여로서 계속해서 내몰릴 뿐이었던 셈이다.

3. 재만조선인 미귀환자의 훼손된 민족성

해방이라는 사건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있어 과거 제국적 질서 하의 삶을 탈각하고 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넘어 새롭게 건설될 해방 조선의 건국 주체로서 거듭날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에 의해 내지 일본을 비롯해 만주 일대나 동남아시아 지역 등 제국의 법역(法域)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선인들은 서둘러 귀환을 달성해야 했다. 그리고 그때 귀환의 과정은 식민지인으로서의 하위의 열등한 위상을 전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민족적 주체로서 자신을 변혁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외부에서 한반도 내부로의 지리적 이동을 완수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외부로부터 한반도 내부로 이동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제국 일본의 신민(臣民)으로서의 자기를 벗어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민족의 일원으로 갱신해야 하는 제의의 과정이 필요했다. 물론 이러한 제의는 세대·지역·젠더·계층별 다양하고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징병·징용된 남성 청년들의 이동 과정이 지리적 귀환을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제국 일본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여겨졌던 여성 하층민들의 귀환은 조선인-되기의 어떤 정화의 과정을 수행해도 결코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쉽게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해방 이후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들과 돌아가지 않으려는 조선인들 또한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삶의 내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삶에의 의지를 가지고 식민지시기 만주로 이주하여 정착했던 재만조선인들이 있었다. 재만조선인들의 만주개척사를 여기에서 개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체로 그것은 생계로 인한 자발적인 것이든,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의한 타율적인 결과이든, 만주 이주 이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한 농민들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었다. 또한 제국 일본에 의해 괴뢰국인 만주국 건국 이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오족협화(五族協和)·왕도낙토(王道樂土)의 이데올로기 공간으로서 만주국에 투신하여 제국 일본인에 이어 '이등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며 살아갔던 자들의 이야기가 산포되어 있었다. 제국 일본의 패전 직후 그들은 해방 조선의 민족으로서 제국의 통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중국인이나 몽골인 등과 마찬가지로 해방된 민족으로서 자유를 만끽해야 했지만, 바로 그 이등국민이라는 위상으로 인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특히 만인들에게 적대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에의 위협을 느껴 서둘러 조선으로 귀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만조선인 전재민들 중에는 귀환하고 싶어도 귀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작품이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이다. 경상남도 동래 출신인 조준식은 유년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간 뒤 일본적(日本籍)인 외조부 민적에 이름을 올려 자연스럽게 일본인 마쓰노로 행세해 오고 있던 자였다. 일본인 처와 결혼해 만주 안동(安東)에서 해방을 맞았던 그는 그동안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배급 등에 있어 유리했지만, 급변하는 시세에 맞춰 조선인으로서 자신의 성(姓)을 되찾고자 한다. 또한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모친에게 가고자 했지만, 원자탄 피폭 이후 상황을 알 수 없어 조선인으로서 안온히 살 수 있다면 조선에 정착하고자 한다. 하지만 신의주에 있는 친척집에 간 아내와 헤어져 전화(戰火) 속에서 생존에의 위협을 느껴 스스로를 집안에 억류할 수밖에 없었다. 안동에서 일본인 마쓰노로 살았던 그는 조선인들과 교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선인회로부터 보호나 원조를 받을 수 없어 쉽게 조

선인이라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방 직후 그는 "조선사람편에서 미워할 것은 물론이요 일본인측에서 탐탁히 여겨주지 않고 만인(滿人)도 좋아 않"[24]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후 아내의 부탁을 받은 홍규가 찾아와 함께 신의주로 가자고 하자 그는 조선명이 적힌 문패와 태극기를 내걸면서 그간 일본인들을 자극하여 곤욕을 치를 것을 두려워하던 자신을 반성하는 한편, "인제는 조준식이지 마쓰노는 아닙니다."[25]라고 말하면서 조선인으로 살아갈 의지를 피력한다. 그리고 홍규의 도움으로 국경을 넘으면서 일본인 행세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조선인 성을 되찾을 것인지 방황하던 그는 조선인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 신의주에 와 처자식과 함께 일본인 처의 친척집에 기거했던 조준식은 홍규와 함께 호구지책으로 장작 패는 일을 이어가는데, 더부살이하던 집을 내어주게 되자 본국으로 귀환하고자 했던 일본인들이 모여 있던 '곳간'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인 그가 와 있을 곳이 아니라며 일본인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한편, 내선결혼 등 가정 내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일본인들로부터 동정어린 시선으로 '내지'에 함께 가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모친이 있는 나가사키에 가 직장을 구하고자 한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끊임없이 방황하던 그는 홍규가 태극기를 건네주면서 어디에서든 가족이 함께 살라며 격려하자 "이 기를 받고나니 인제는 제가 정말 다시 조선에 돌아온 것 같고 조선사람이 분명히 된것 같습니다."[26]라고 울먹인다.

만주에서 일본인으로 살아왔던 조준식이 해방이라는 사건을 통해 조선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해방의 아들」은 그 제목과는 달리 재만조선인의 조선으로의 귀환이 쉽

24) 염상섭, 「解放의 아들」, 『廉想涉全集 10』, 민음사, 1987, 18면.
25) 위의 책, 24면.
26) 위의 책, 41면.

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그것은 그가 일본인 처와 결혼한 자였기 때문에 그녀와 헤어져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곤란해서가 아니라, 만주에서 일본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해방 이후 과거 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은 적대와 청산의 대상이었다. 더구나 피식민자로서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인 조선인을 억압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선인은 결코 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패전 일본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놈들이 지금와서 성명이나 있는놈들입니까. 보안대나 로스키—가 얼신만해도 쥐구멍을 찾는놈들이 사람을 만만히 보구…… 내가 이런처지니까 아무런 개수작을 한 대두 일본놈처놓고 편을 들어줄 리 없고 조선사람 역시 역성은 해주지 않을것이라는 짐작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람에대한 분푸리를 내게다가 하려드는 것이거든요……."[27] 오히려 그는 패전 일본인들에게 분풀이의 대상으로서 일본인을 흉내 냈던 조선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조선인이었다가 일본인이 되었지만, 해방을 맞아 다시금 조선인이 되고자 하는 그는 조선인 사회에서도 일본인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 위의 존재이다. 패전/해방 이후 민족적 경계의 분할선이 다시금 획정되어가는 가운데, 조선인 입장에서 그는 구식민자인 일본인이었고, 일본인 입장에서 그는 패전 국민이 아닌 것이다. 홍규가 태극기를 통해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의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 역시 태극기라는 민족적 표상을 통해 자신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정립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배제될 뿐이다. 해서 그의 귀환은 달성 불가능하다. 귀환하고 싶어도 귀환할 수 없는 자, 조선인으로서도 일본인으로서도 자기를 재정립할 수 없는

27) 위의 책, 38-39면.

그는 결국 이름을 상실한 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활을 이유로 일본인으로 행세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는 조선인임을 스스로 포기했던 자로 배제되어 해방 조선의 주위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해방 이후 조선으로 귀환하지 않으려는 조선인의 행위와 욕망을 서사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만선의 「이중국적」을 들 수 있다. 라디오를 통해 일본 천황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 선언을 들은 뒤 아들 명환은 일본이 패망하였으므로 비록 자신이 만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고국인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30여 년 전 만주로 이주해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아버지 박노인은 아들의 귀환 의사에 반대하면서 조선으로 돌아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냐며 굳이 귀환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잘 살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제국 일본의 패전으로 만주 일대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해방의 감격 속에서 징용에 대한 공포로부터 놓여난 아들과 달리 소련군의 참전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피난 간 김에 대해 골몰할 정도로 박노인은 「이중국적」에서 강한 물욕을 보이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런데 만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들의 공장을 파괴하고 주택을 습격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물건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에 아들은 다시 조선에 돌아갈 것을 종용하지만 아버지는 만인들에게 습격당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기대와 달리 만인의 습격에 아들 내외와 헤어져 급히 피신한 박노인은 만주 이주 후 중국인으로 귀화한 자신을 스스로 중국인이라 여기면서 다시금 자신을 공격하는 만인에게 분개할 뿐이었다. 교분이 있었던 중국인 왕의 집으로 피신한 그는 일본인 공장에서 물건을 약탈하는 만인과 마찬가지로 그것들

을 가져오는 한편, 생명에 위협을 느낀 아들이 찾아와 조선으로 돌아가자고 재차 말하지만 만인들에 의해 집안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빌려준 김의 집 세간을 옮겨오기에 여념이 없다. 끊임없이 물욕을 보이고 있는 이 박노인은 왕의 집을 불시에 검문한 만주 군인에게 자신의 중국인 민적을 내어 보이면서 위험을 회피하고자 했지만 조선인으로서 신분이 탄로나 붙잡혀가다 폭행당해 쓰러지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재만조선인은 왜 해방 이후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가? 무엇보다 그것은 만주 이주 후 30여 년 동안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축재한 그가 조선으로 돌아갔을 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이유로 귀환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인데, 이는 이 작품 곳곳에서 탐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그를 통해 그의 이동의 조건에 무엇보다 경제적 상황이 가로놓여 있음을 짐작케 한다. 자신이 떠나온 땅을 고국으로 여기거나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감각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박노인은 장소애(topophilia)의 대상으로서 조선을 인식하거나 감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방이라는 사건이 촉발한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서의 자기를 재정위하려는 욕망 또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생존에의 위협 속에서 피난을 가거나 귀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의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는 해방 이후 일반화된 재만조선인의 이동의 문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획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것은 이 소설의 제목이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바 그가 조선인으로서 중국인이라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변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였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십수년전 일인들의 만주에 대한 야망은 차츰 노골해가는 한편 이것을 막으려는 중국인들틈에 끼

어 재만조선인들은 처신하기에 난처했다. 아주 일인들의 앞잽이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 현지당국인 길림성장(吉林省長)의 소청대로 귀화하던가 하지않으면 그날그날의 생활에까지 위협을 느끼였었다. 그때 박노인은 선선히 중국인으로 국적을 고치고 말았다. 조선서 생활에 쪼들인 끝에 만주로 건너온 바에야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쫓는 편이 현명할것 같아서였었다. 그 뒤로부터 박노인은 언제나 민적(民籍)을 품에다 지니고 다녔었다. 만주국이 탄생된 후에야 궤속에다 간직했었다. 농사를 짓는 한편 토지매매를 소개해오던 그로서는 그가 중국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편이 유리한 까닭이었다. 그것은 그가 만어를 잘하는 조선인이기에 쉽사리 일인들에게 토지를 소개 해 올수 있었던 까닭이었다. 중국의 동삼성(東三省)이 만주국으로 행세하게된 후로부터 일인들 앞에서 조선인들이 공공연하게 조선인으로서 처세한 것은 기실 조선인으로서이기보다도 일본인인 「반도인」으로서였기 까닭에 일어는 불과 몇마디 못하는 박노인이었으나 아들 명환의 일어를 빌어 만인들의 토지를 일인에게 소개해 주는 잇속에 빠른 그에게는 중국인으로 귀화했다는 증거물을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였다. 그리던 그는 작년부터 또다시 묵은 문서를 저고리 안주머니에다 지니고 다녔다. 전쟁 때문에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어느 때 또 그놈이 긴요하게 쓰일지 몰라서였다. 좌우간 동기는 어떻던간에 그가 중국인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므로 중국인인 그가 만인들에게 조선인이라고해서 봉변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28]

먹고살기 위해 조선을 떠나 만주에 이주했던 박노인은 제국 일본의 대륙 진출에 따라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일본인과 중국인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생활에의 편리를 이유로 중국인으로 귀화한다. 하지만 만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만인과 일본인을 교섭하는 데 있어서는 '반도인'으로서의 일본인이라는 위치가

28) 金萬善, 「二重國籍」, 『鴨綠江』, 同志社, 1948, 70-72면.

유리했기 때문에 귀화의 사실을 숨긴 채 생활하다가 다시 식민지 말 전쟁의 발발 속에서 전화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니까 그의 국적은 생존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의 결말에서 박노인이 만주 군인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지는 장면을 통해 기실 그는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축재를 위해 위장 국적을 활용하고자 했던 탐욕적인 박노인의 몰락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 그것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고국인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려는 자에 대한 처벌이자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폐기하고 사리사욕에 눈멀어 일본인이자 중국인 행세를 하고자 한 자에 대한 응징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귀환하려고 했다면, 그 귀환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인가. 만주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조선을 고국으로 인식하고 감각하고 있던 아들과 달리 조선은 그에게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상기시키는 곳이다. 그리고 만주를 떠난다는 것은 30여 년 동안 구축한 자신의 삶의 기반을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는 중국인으로 귀화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반도인'으로서 일본인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던 자였다. 즉, 다시 말해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그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애초에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만선의 「이중국적」은 민족주의적 시선으로 귀환하지 않(으려)는 재만조선인에 대한 처벌을 서사화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를 통해 귀환을 정당화하는 이동의 문법과 질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실 박노인으로 하여금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바로 그 민족주의 이념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폭로한다. 해방 조선의 건설 주체로서 호명된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변절자, 비록 생존을 위해 일본인이나 중국인으로서 위장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

라도 제국-식민지 체제의 산물인 그는 민족주의 이념에 따라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과 김만선의 「이중국적」은 해방 이후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자,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남으려는 자의 행위와 욕망을 보여준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두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귀환의 가능성이 애초에 봉쇄된 재만조선인이 배제되거나 처벌받는 서사는 한편으로는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 건설의 민족적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민족적 주체의 강고한 틀 속에서 누가 버려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은 일본인으로 입적했던 조선인과 중국인으로 귀화했던 조선인으로, 그 자체로 훼손된 민족성을 증거하는 자들이자 민족국가의 경계 속에 안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들의 귀환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었고, 반이동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해서 앞서 살펴본 미귀환자 재조일본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제국의 잔여이자 국민국가의 잉여로서 끊임없이 부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4. 미귀환자의 반이동의 정치성

이 글에서는 해방기 한국소설을 대상으로 패전/해방 이후 일본과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은/돌아갈 수 없는 미귀환자 재조일본인과 재만조선인의 문학적 표상 및 그들의 행위와 욕망에 내재된 반이동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패전/해방을 임계점으로 한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탈식민-냉전 체제로의 전환기 국민국가의 재건과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조건 속에서 전후 레짐의 구축 및

해방 조선의 성립을 위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재건되어야 할 국민국가와 건설되어야 할 민족국가의 경계를 획정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전쟁 수행을 위해 전시총동원 체제하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인구와 물자 등이 제국주의 권력 아래 통합되어 균질적으로 동원되었던 것에 비해 제국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 조선의 해방은 일본과 조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에 기존의 질서와 문법에 의해 통제된 이동을 해체하거나 와해하는 새로운 이동을 낳았다. 특히, 거기에는 상실된 국민(민족)국가의 회복이라는 탈식민화의 기치와 함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 과정 속에서 인구와 자본, 문화 등이 서로 교착하고 분기하는 혼종적인 이동성이 창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전의 기억 속에서 국민국가의 경계 속으로 들어가거나, 해방의 감격 속에서 민족국가의 경계를 구축하여 강화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 포섭/배제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고착화되었다.

이동은 자아를 넘어 세계를 자각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방식이다.[29] 그리고 개인은 이동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공동체에 입사(入社)하며, 문화 생산의 동력을 마련한다. 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하지만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 없는 자, 이동하기를 그만둔 자, 규준화된 이동에 저항해 그러한 이동의 방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자 등 반이동의 형식들은 개인의 욕망에 따라 다채롭게 분기한다. 제국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 조선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구식민자로서 일본인들과 피식민자로서 조선인들에게 부여한 이동의 조건·문법·형식들은 대체로 국민(민족)국가의 실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패전 국가

29) 존 어리, 강현수・이희상 역, 『모빌리티』, 아카넷, 2014, 124면.

로서 전후 레짐의 구축,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동은 국가를 향한 개인의 '당위적 귀환'으로 균질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패전/해방 이후 일본과 조선으로 귀환하지 않았던/못했던 재조일본인과 재만조선인들의 행위와 욕망을 통해 전후/해방 국민(민족)국가의 실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한 이동의 조건·문법·형식들이 역설적으로 반이동을 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국민(민족)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개인이 어떻게 생명정치의 메커니즘 속에서 포섭되면서 동시에 배제되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실 확정된 국민(민족)국가의 경계를 기준으로 배제/포섭하는 것이 아닌, 포섭하는 것 못지않게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경계를 획정해가고 있었음을 폭로한다. 나아가 그렇게 경계를 획정한 국민(민족)국가가 언제든 국민(민족)됨의 자격을 내세우면서 개인을 포섭하고 배제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고, 그러한 유동성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폭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재조일본인과 재만조선인 미귀환자가 제국의 잔여이자 국민국가의 잉여로서 그 자신의 신체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끝으로 이 글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과 국민국가들의 발흥 속에서 이동하지 않은/못한 자들의 행위와 욕망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성립되어가는 가운데 자유반공 진영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연대 움직임 속에서 다채롭게 분기했던 동아시아인들의 냉전적 질서에 대항하는 반이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아울러 고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했던 제국의 잔여이자 국민국가의 잉여로서 인간 존재의 반이동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조선(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지 않은/못한 재일조선인들과 과거 제국-식민지 체제기 동아시아의 각 지역과 국가로 이산되었다가 귀환하지 않은/못한 자들, 그리고 미소군정 체제에 이은 1948년 분단 체제의 성립 전후 38선을 월경하지 않은/못한 자들을 둘러싼 이동의 조건·문법·형식들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전시총동원 체제에 투신해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천황의 군대로서 전장에 참전했지만 돌아가지 못한 전쟁 포로들의 자기 서사, 그리고 해방과 분단, 열전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혼돈 상황을 목도하면서 상실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재일조선인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문학작품, 수기, 영상물 등을 대상으로 한 다각도의 분석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제국의 체험과 기억이 패전/해방 이후 잔여로서 지속되는 한편, 국민(민족)국가 성립 과정에서 비국민으로 배제되는 자들의 문학적 표상에 주목해 해방기 한국소설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탈식민화의 과정 속에서 과거 제국-식민지 체제기 함께 연루되었지만 구조적 차별을 갖고 있었던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이 전시총동원 체제하 균질화된 이동의 방향성을 부여받았다가 패전/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조응해 어떻게 다르게 이동하고 있었는가에 주로 주목했던 기존 논의가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을 각각 패전 일본인과 해방 조선인으로 구분해 그들의 이동성의 차이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제국과 식민지, 국민(민족)국가라는 정치체가 어떻게 인간의 이동을 통제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이 글은 지배/피지배의 도식을 통해 그러한 관

계가 파타난 이후의 이동(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망을 형성한 체제와 대면한 주체의 이동(성)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제국-식민지 체제기 이동이라는 공간적 실천 행위를 통한 인간의 행위와 욕망을 제국/식민지, 식민자/피식민자, 일본(인)/조선(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틀로 사유하는 방식이, 패전 이후 전후 체제, 그리고 해방 이후 민족국가를 사유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국과 국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동 중인 인간의 존재 방식을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체제의 전환에 응수하는 인간의 행위와 욕망에 관심을 두어 패전/해방이라는 사건이 촉발한 균질화된 이동성에 반하는 인간의 문학적 표상에 주목했던 것이다. 특히 국가주의 권력 아래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이동의 조건·문법·형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등이 실시되어왔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때,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인간의 행위와 욕망을 추적하는 것은 국가가 무엇인가를 되묻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만 한정하더라도, 식민지, 해방, 분단, 전쟁, 그리고 전후에 이르기까지 민족국가의 자기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인간 이동의 통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 배제되거나 은폐된 반이동의 행위자들과 그들의 움직임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근대 세계 체제하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지역 질서 속 인간의 이동(과 그 속에 내재된 욕망)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체제에 의해 질서화되고 구조화된 이동을 수행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분열하고 불안해하는 주체들, 어떻게든 탈주하고 미끄러지는 신체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金萬善, 「二重國籍」, 『鴨綠江』, 同志社, 1948.

염상섭, 「解放의 아들」, 『廉想涉全集 10』, 민음사, 1987.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許俊, 「殘燈」, 『殘燈』, 乙酉文化史, 1946.

후지와라 데이, 위귀정 역,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 청미래, 2003.

2. 단행본

가와무라 미나토 지음, 유숙자 옮김, 『전후문학을 묻는다』, 도서출판 소화, 2005.

김예림, 「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精神誌)」, 권혁태·차승기 엮음, 『'전후'의 탄생』, 그린비, 2013.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신형기, 『분열의 기록—주변부 모더니즘 소설을 다시 읽다』, 문학과지성사, 2010.

오태영, 『팰럼시스트 위의 흔적들-식민지 조선문학과 해방기 민족문학의 지층들』, 소명출판, 2018.

존 어리, 강현수 · 이희상 역, 『모빌리티』, 아카넷, 2014.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 논형, 2013.

成田龍一, 『「戰爭體驗の戰後史—語られた體驗/證言/記憶』, 岩波書店, 2010.

3. 논문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제29집, 상허학회, 2010, 333-376면.

류보선, 「해방 없는 해방과 귀향 없는 귀환—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 읽기—」, 『현대소설연구』 제4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175-210면.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27-363면.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間SAI』 제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161-193면.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40호, 한국비교문학회, 2006, 131-157면.

<Abstract>

Defeat of War and Liberation, Politics of Anti-movement of a Person Who Has Not Been Repatriated

Oh, Tae-Young

On August 15, 1945, the historical events of the empire's defeat of Japan and the liberation of colonial Joseon provided the conditions and forms of movement for the Japanese people and the Joseon people. And they were generally converged to strengthen the positivity of the nation-state. As a defeated nation, the Japanese and Koreans moved in the process of the regime change of postwar regime as a defeated nation,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state of liberation Joseon. It was homogenized by 'supreme repatriation' which is subscribed to the boundaries of nation-state. However, there were Japanese and Joseon people who did not return to Japan and Joseon after the defeat/liberation. Through their actions and desires, we can see how individuals are excluded from the mechanism of life politic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process of eliminating or submitting based on the boundaries of the established nation-state, but not excluding the inclusion, was defining the boundary. This is the politics of anti-movement of the Japanese and the Joseon people, who are remnant of the empire and surplus of the nation-state.

Key words: defeat of war, liberation, repatriation, movement, nation-state, postwar regime

투 고 일 : 2018년 11월 14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